

#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인 삶의 질의 변화

김 정 오\*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방법 및 내용 |
| II. 이론적 배경    | V. 주요 결과      |
| III. 본 연구의 목적 | VI. 논 의       |

## I. 서 론

그리스 시대 이래 철학 분야에서는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는 행복의 추구라는 인식이 지속되어왔다. 심리학자를 위시하여 사회과학자들이 행복을 포함한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에 실증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주관적 복지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 복지가 행복감, 생활만족 및 긍정적 감정으로 구성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인다(Diener, 1984). 이 복지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건강, 안락 또는 부와 같은 객관적 조건들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으며, 삶의 만족감, 긍정적 감정 등과 한 개인의 삶의 모든 면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포함한다.

1960년대 중반기 이후부터 주관적 복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사회과학자들은(예: Cantril, 1965; Andrews & Withey, 1976) 전국 표집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구조 또는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개인의 지각된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주관적 복지라는 개념의 성질과 구조,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성질을 밝혔다. 예를 들면, 연령, 건강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개인의 행복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관적 복지를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서울대, 심리학

각 나라 안에서 소득과 주관적 복지 사이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개인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에 대응해서 더 향상된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인구사회적 변수 중, 연령은 주관적 복지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개인의 교육 수준 역시 주관적 복지와 약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들이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주관적인 만족(예: 자신에 대한 만족, 생활수준 및 가족생활의 만족 등)은 개인의 삶의 질과 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제안되어왔다. 그 중 어떤 설명은 이러한 주관적 평가들이 인과의 연쇄상 객관적 조건들보다 주관적 복지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정치민주화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변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효과를 드러내는지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와는 다른 목적에서 수행된 최근의 한 연구(조명환·김정오, 1993)에 따르면 정보화 사회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 양자 간에 부의 상관관이 있었고, 사람들이 일에 대한 애착을 덜 갖고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 떨어짐이 밝혀졌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또한 정보화에 따라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리라고 염려하고 있었다.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정보화 매체의 사용 등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함을 암시한다.

정치민주화는 한 사회의 정보화보다도 더 큰 변화 과정이며 개인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그 삶의 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난 일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민주화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민주화 과정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Shin, 1994). 민주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민 집단 간의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모으고 또 타협시킴으로써 공동선을 최대로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자기성장 및 자제 기회를 최대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드러나겠지만, 무엇보다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아실현, 교육, 스트레스 등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영향이 드러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삶의 질, 더 구체적으로는 주관적 복지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들은 크게 상

향론(bottom-up theories)과 하향론(top-down theories)으로 구분된다(Diener, 1984). 앞의 이론은 한 개인의 행복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순간 및 경험의 합에서 연유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삶의 만족감은 가정생활, 결혼, 재산 상태, 주거 등의 영역에서 갖는 만족의 총화이다(예: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하향론은 성격과 같은 총체적 차원이 주관적 복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행복한 까닭은 객관적인 조건에서 행복한 경험을 해서라기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향론은 객관적 상황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주장한다(Costa, McCrae & Norris, 1981).

주관적 복지에 관한 이 두 범주의 이론들은 성격의 역할을 둘러싸고 대립되어왔다. 예를 들면, 신경성(neuroticism)과 같은 성격 차원이 생활사건들에 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신체적 질병에 대한 지각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알려져 있다. 반면, 성격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들이 신체적 질병을 초래함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후자의 연구들은 주관적 복지에 관한 상향론을 지지한다. Brief, Butcher, George 및 Link(1993)는 이 두 이론을 하나의 틀 안에 통합시키려 하였다. Brief 등에 따르면, 객관적인 조건들과 총체적인 성격 차원들은 모두 생활상황들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그 효과를 미치고, 후자가 다시 개인의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연구자들은 성격 차원으로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객관적 생활 상황으로는 개인의 건강, 생활 상황의 주관적 해석으로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건강을 각기 측정하였는데 성격차원과 건강이 모두 주관적 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Seidlitz와 Diener(1993)는 Brief 등이 시도한 접근과는 달리, 보다 분석적인 수준에서 주관적 복지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기억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객관적인 사건 및 그에 대한 해석이 모두 주관적 복지와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Seidlitz와 Diener의 결과는 객관적 상황과 성격 등과 같은 주관적 차원이 모두 주관적 복지와 관련된다는 Brief 등의 상호작용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개관을 통해서 제기되는 다음의 주요한 몇 가지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정치민주화라는 총체적인 변화 과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개인의 행복감,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가장 쉬운 예상으로서, 민주화과정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개인의 성격, 객관적 상황지각, 주관적 평가/만족 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러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와 대조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정치민주화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상향/하향적으로 매개변수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상향변수(bottom-up variables)로는 객관적 여건, 즉 소득, 주거환경 등이, 하향변수로는 외향성, 신경성 등의 성격 변수가, 매개변수로는 주관적 해석이 각기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정치민주화가 개인의 주관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Diener, 1984).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민주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몇가지 연구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흑인들의 경우 이차대전 후부터 1966년까지 정치적으로 분명한 향상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육을 받았고, 소득이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엘리트 흑인들이 이 기간에 주관적 복지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인 반면, 백인 엘리트의 경우는 이러한 감소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Gibbs, 1973). 반면, 흑인 농부들은 같은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행복감을 드러내었다. 이 결과는 인종의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정치적 향상과 더불어 만족감이나 주관적 복지가 잇따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민주화과정이 개인의 주관적 복지와 관련된 다른 가능성은, 사회적 참여와 주관적 복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참여정도와 주관적 복지 간의 관계는 외향성과 같은 성격 변수들이 개입하므로 생각보다는 단순하지 않지만, 조사 연구에 따라서 사회적 참여가 많을수록 개인의 주관적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져있다(Diener, 1984의 개관 참조). 셋째, 개인의 주관적 복지는 행복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예, Headey, Holmstrom & Wearing, 1984; Seidlitz & Diener, 1993). 지난 1년간 진행되어온 정치민주화과정이 그동안의 부정, 부패, 비리 등을 척결하고 또 권위주의적 통치를 불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각 개인에게 긍정적인 사건들을 제시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민주화에 따라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관적 복지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관적 복지는 소수의 몇몇 강력한 변수들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주관적 복지를 설명하는 변량이 매우 작다. 이러한 사실은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성격과 같이 질적으로 다른 변수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주관적 복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몇몇 성격 변수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

았다. Diener(1984)는 이러한 사실들에 주목하면서, 주관적 복지가 여러 수준에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몇몇 변수들로는 설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주관적 복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방법론상, 또 이론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민주화와 관련된 개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여러 변수들의 효과 및 그 상호작용의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Ⅲ. 본 연구의 목적

정치민주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몇개의 구체적인 물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민주화 과정 때문에 개인 생활의 어떠한 영역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민주화가 하나의 총체적 과정으로서 대인관계, 경제 생활,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불안 등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되,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민주화가 몇몇 개인생활 영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민주화 때문에 개인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2)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주관적인 계층 인식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개인의 소득에 따른 신분 또는 능력과 같은 변수들이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과 함께 변할 가능성이 있다(Diener, 1984). 또 다른 가능성으로, 소득에 따라 주관적 만족감이 달라지고, 이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복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가 본 연구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의 성격,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행복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수록 민주화가 각자의 삶의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그의 행복감이 달라질 것이다. (4) 민주화과정에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그 개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지각되는가? 어떤 변수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가? 이 물음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개관한 바 있는 Brief 등의 상호작용론이 민주화과정에 따르는 삶의 질의 변화의 배후에 작용하는 역동적 과정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관적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밝힌 사실들과 비교되어 평가되며, 상호작용론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민주화가 어떤 배후

과정을 거쳐 개인의 주관적 복지를 향상시키는지, 또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Ⅳ.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1993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민주화와 삶의 질에 관한 국민의식 연구” 중 정치 민주화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다단계 층화표집법에 의해 서울을 위시한 네 주요 도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1,198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표집의 1/3은 직접 훈련받은 조사자들이 면접하였고, 나머지는 질문지를 배부하여 나중에 수집하였다. 총 58문항인 이 질문지는 응답자의 정치에 대한 생각, 민주화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정당 및 단체활동,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친 영향, 공공생활에 미친 영향, 경제생활, 삶의 질 등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정치민주화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물음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민주화가 응답자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정권 유형에 따른 삶의 질, (3) 응답자들의 성격 특성과 지각된 정치민주화의 결과, (4) 민주화와 가족생활,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및 (5)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상향 및 하향 변수들의 효과 등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중 월소득이 99만원인 응답자들은 전체의 29%, 100-149만원이 역시 29%, 150-199만원이 18%, 200만원 이상이 1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가 11%, 중졸이 14%, 고졸이 38%, 초급대학을 포함 대졸 또는 그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이 14%, 사무직이 12%, 판매서비스직이 18%, 생산직/농어민이 22%, 무직을 포함한 학생이 12%, 그리고 주부가 20%를 차지하였다.

## V. 주요결과

## 1. 정치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민주화가 그들 자신의 개인 생활의 여러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은 질문들에 대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자들의 약 60% 이상이 대인관계, 개인의 정치활동, 및 교육기회 영역은 민주화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예컨대, 조사 대상자의 70%는 민주화와 개인의 정치활동이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도덕윤리 수준,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 추구, 인간다운 대우 등의 여러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개선의 방향으로 개인의 경제생활 및 스트레스와 불안 영역에서는 민주화가 악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특정 영역과 관계없다는 반응을 제외하고 두가지 개선 응답율의 합에서 두 악화 응답율의 합을 빼면 특정 영역에서 개선 또는 악화 쪽으로의 평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인간다운 대우에서 가장 큰 개선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 추구, 가정생활 순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의 경제생활 및 스트레스와 불안 영역에서는 민주화가 악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민주화는 사람들의 개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으로 나누어짐이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위의 항목들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 개인생활에 관한 여러 문항이 두 요인, 즉 민주

〈표 1〉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률(%)\*

| 영역            | 매우개선 | 다소개선 | 관계없음 | 다소악화 | 매우악화 |
|---------------|------|------|------|------|------|
|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 | 4    | 30   | 46   | 14   | 4    |
| 개인의 경제생활      | 1    | 22   | 46   | 25   | 4    |
| 대인관계          | 3    | 24   | 65   | 4    | —    |
| 개인의 정치활동      | 3    | 19   | 70   | 3    | 1    |
| 교육기회          | 4    | 27   | 60   | 5    | 1    |
| 도덕, 윤리수준      | 4    | 34   | 37   | 18   | 4    |
|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 | 4    | 31   | 52   | 7    | 2    |
| 인간다운 대우       | 4    | 41   | 44   | 7    | 2    |
| 가정생활          | 4    | 28   | 58   | 6    | 1    |
| 스트레스와 불안      | 2    | 21   | 47   | 21   | 7    |

\*각 영역에서 응답률의 합은 100임. 100 이상 또는 이하는 반올림과 무응답 때문임.

화의 영향을 받는 개인 생활의 영역과 민주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영역으로 양분됨이 드러났다(표 2).

요인 1은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측면들과, 요인 2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는 측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자아실현 및 삶의 보람 추구, 인간다운 대우 및 도덕 윤리수준은 요인 1과 큰 부하량을 보였고, 개인의 정치활동, 대인관계 등은 요인 2와 큰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 1은 변량의 31%를, 요인 2는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11%를 설명하였다.

요인 1, 즉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30% 이상은 범죄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도덕윤리수준,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 인간다운 대우, 및 가정생활에 민주화가 개선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생활 및 스트레스와 불안에서는 민주화가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22%의 응답자들은 민주화 때문에 도덕윤리수준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주요한 몇몇 측면을 개선 또는 다소 악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변화가 각 응답자의 삶에 대한 만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을 (가) 삶 전체에 대한 만족, (나) 개인의 인생목표와 이상에 비추어 평가되는 만족 및 (다) 친구나 동료가 해낸 것과 비교해서 평가되는 만족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응답자들에게 반응하도록 요구하였다. 응답자들이 삶 전체에 대한 만족 정도를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는 중간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고, 60%는 정도를 달리하지만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표 2〉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분석

|               | 요인 1 | 요인 2 |
|---------------|------|------|
|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 | .68  | .17  |
| 인간다운 대우       | .66  | .23  |
| 도덕, 윤리수준      | .66  | .03  |
| 스트레스와 불안      | .63  | .01  |
| 가정생활          | .57  | .24  |
| 개인의 경제생활      | .47  | .32  |
|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 | .39  | .12  |
| 개인의 정치활동      | .00  | .76  |
| 대인관계          | .17  | .65  |
| 교육기회          | .27  | .61  |
| 설명하는 변량(%)    | 31   | 11   |



16%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의 인생목표, 이상에 비추어 현 상태를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21%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고 반응하였고, 51%는 만족, 28%는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친구나 동료가 해낸 것에 비해 자신히 이루어낸 것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28%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라고 반응하였고, 47%는 만족한다고, 24%는 불만족스러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세가지 만족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응답자들의 반수 이상이 자신의 삶을 이모저모로 비교하여 만족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삶 전체, 또는 친구나 이상과 비교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응답자들은 각기 30% 미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패턴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세 만족 지표와 개인생활에 미친 영향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개인생활의 열개의 영역 중 세 만족 지표 모두와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을 보이는 것은 경제생활, 자아실현, 인간다운 대우, 가정생활 및 스트레스와 불안의 영역들이다. 즉 이 영역 각각에서 민주화에 따른 긍정적 방향으로의 개선이 있다고 반응할수록 삶 전체에 더 만족하고, 인생목표와 이상에 비추어 더 만족해 하고, 또 친구나 동료가 해낸 것에 비해 자신이 해낸 것에 더 만족해 한다. 특히 가정생활 영역에서 민주화에 의한 긍정적 영향을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이 다른 영역의 영향력 인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상관계수의 크기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가정생활과 만족의 세 변수 간의 상관에 제일 큰 것으로 미루어 가족 중심으로 만족감이 경험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인관계나 개인

〈표 3〉 개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삶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관계

| 영역            | 삶 전체 | 만족     |                  |
|---------------|------|--------|------------------|
|               |      | 이상과 비교 | 친구와 비교           |
|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 | -.01 | .08*   | .04              |
| 개인의 경제생활      | .12* | .17*   | .09 <sup>a</sup> |
| 대인관계          | .01  | .04    | .05              |
| 개인의 정치활동      | .03  | .05    | .03              |
| 교육기회          | .03  | .12*   | .11*             |
| 도덕, 윤리수준      | .06  | .10*   | .06              |
|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 | .19* | .13*   | .10*             |
| 인간다운 대우       | .17* | .12*   | .11*             |
| 가정생활          | .23* | .18*   | .14*             |
| 스트레스와 불안      | .17* | .12*   | .11*             |

<sup>a</sup>p < .01; \*p < .001

의 정치활동 영역은 세 만족 지표와 아무런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앞의 요인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육기회 영역은 삶 전체에서의 만족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두 만족 변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민주화가 개인생활 중 인간다운 대우,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 가정생활 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삶의 전체나 이상 또는 친구와 비교해서 만족감을 더 경험하도록 함을 알 수 있다.

## 2. 개인의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인식과 정치민주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주관적 복지 사이의 관계는 다소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1984).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음에 따라 생활 전반에서 만족감과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중, 민주화가 개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고, 후자는 다시 삶의 만족과 관계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자신을 계층적으로 높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r=.37$ ). 또한 개인의 소득과 세가지 만족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두 변수 간에 모두 양의 상관이 있었다. 즉 개인의 소득과 삶의 전체에 대한 만족 간에는 .16, 소득과 인생목표/이상에 비춘 만족 간에는 .08, 그리고 소득과 친구/동료와 비교한 만족 간에는 .09의 상관이 있었다. 소득 변수와 만족 변수들 간의 상관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경제생활과 세 만족 변수들 간에도 비슷한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음에 따라 민주화가 개인생활의 여러 영역들 중 자아실현( $r=.12$ )과 도덕윤리수준을( $r=.07$ )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인식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소득

〈표 4〉 개인의 소득, 주관적 계층평가 및 삶에 대한 만족 지표들 간의 상관

| 변 수       | 개인소득             | 주관적 계층평가 | 삶 전체만족 | 이상과 비교만족 |
|-----------|------------------|----------|--------|----------|
| 주관적 계층평가  | .37*             |          |        |          |
| 삶 전체만족    | .16*             | .23*     |        |          |
| 이상과 비교 만족 | .09 <sup>a</sup> | .25*     | .54*   |          |
| 친구와 비교 만족 | .10*             | .25*     | .44*   | .62*     |

<sup>a</sup>  $p < .01$ ; \*  $p < .001$ .

수준이 개인생활의 열 개 영역 중 이 두 영역과 양의 상관을 보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소득을 보고하게 함과 아울러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계층평가와 세 만족 변수들 간에 상당히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주관적 계층평가는 삶 전체 만족과 .23, 인생목표/이상에 비춘 만족과 .25, 그리고 친구/동료와 비교한 만족과 역시 .25의 의미있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계층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그 응답자가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상향독립변수는 세 만족 변수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주관적 계층평가와 같은 주관적인 매개변수는 만족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이다. 주관적 계층평가는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또 계층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강할 수 있으므로 이 변수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간에 역시 상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의 패턴은 또한 주관적 계층평가가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인과의 연쇄상 주관적 복지와 가깝히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3. 성격특성, 개인 생활에서의 변화 및 행복감 간의 관계

Andrews와 Withey(1976)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주관적 복지의 변동을 10% 정도밖에는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 복지를 결정짓는 변수를 외향성, 신경성, 지능, 자존심, 낙관주의와 같은 성격특성에서 찾아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Diener(1984)는 그의 개관 연구에서 자존심, 내적통제, 외향성, 지능 등이 주관적 복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자존감이 클수록 행복해하며, 성과들을 외적 원인에 돌리기보다 내적으로, 자신에 돌릴수록,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또한 긍정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과 주관적 복지 사이의 관계는 다소 애매한데, 아마도 제3의 변수들이 지능과 주관적 복지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약 52,000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복지를 연구한 Shaver와 Freedman(1976)은 네 가지 심리적 태도 -정서적 안정성, 탈 냉소주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 및 개인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통제감-가 행복감의 핵

심 요소들임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성격 특성과 같은 하향독립변수들이 주관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Shaver와 Freedman이 사용한 질문지중 성격 차원을 측정하는 여섯 문항을 번역하고, 여기에 한 문항을 더 첨가한 일곱 문항으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대인관계성, 신경증, 의미추구성, 행동변화성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 성격특성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90%의 응답자들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67%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87%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고, 방향이 서 있다고 보고 있고, 약 50%는 자신이 때때로 거짓말쟁이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며, 82%는 좋은 일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알고, 51%는 매순간 명칭한 사람이 태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며, 82%는 정치민주화에 발맞추어 의식이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패턴을 종합해 보면, (1) 응답자들은 대인관계에 대해 적극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의도만큼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며, (2) 내적 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보다는 외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에 더 예민하며, (3) 행동의 외적 통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매순간 명칭한 사람이 태어나기 마련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50%나 된다는 점은 이들이 행동의 원인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으로 돌리고 있으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고 경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바를 말해주면 그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타인에

〈표 5〉 성격 차원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률(%)

| 성 격 문 항  | 매우  | 약간  | 약간     | 매우     |
|--|-----|-----|--------|--------|
|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을 좋아한다                            | 32  | 57  | 9      | 1      |
| 나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9  | 48  | 28     | 4      |
| 나에게서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안다         | 23  | 59  | 13     | 3      |
| 나는 때때로 자신이 거짓말쟁이처럼 느낀다                             | 4   | 42  | 31     | 21     |
| 나는 나의 삶이 의미있고, 방향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                      | 27  | 50  | 19     | 3      |
| 나는 매순간 순간 명칭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 8   | 43  | 33     | 12     |
|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은 현재의 정치민주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 40  | 42  | 11     | 4      |

대한 정직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고방식은 아니다.

응답자의 반응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이 요인분석에는 앞서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문항들 중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 문항을 별도로 뽑아서 모두 여덟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네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및 "듣고자 하는 바를 말해준다"와 관련되어 있고, 요인 2는 "자신이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진다"와 "좋은 일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안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요인 3은 "삶이 의미있고, 방향이 있다" 및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추구"와 큰 부하량을 보이며, 요인 4는 "의식이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및 "멍청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다"와 큰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으로 미루어, 요인 1은 대인관계 상의 적극성을, 요인 2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신경성을, 요인 3은 삶의 목표추구성을, 요인 4는 행동 통제성과 각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네 요인 중 대인관계 적극성이 18%의 설명 변량을 보이며, 행동의 통제성 및 변화성은 13%로서 제일 적은 설명 변량을 나타냈다. 이 요인들이 모두 비슷한 크기의 설명 변량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추출된 성격의 네 차원들 간의 관계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삶에서 그 의

〈표 6〉 성격 문항과 개인생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 성 격 문 항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
|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을 좋아한다                            | .78  | -.02 | .15  | -.15 |
| 나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68  | .13  | -.19 | .26  |
| 나에게서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안다         | -.06 | .79  | -.11 | -.01 |
| 나는 때때로 자신이 거짓말쟁이처럼 느낀다                             | .12  | .68  | .08  | -.07 |
| 자아실현과 보람 추구  | -.12 | .01  | .81  | .07  |
| 나는 나의 삶이 의미있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 .43  | -.06 | .59  | -.03 |
| 나는 매순간 순간 멍청한 사람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 -.02 | .09  | .28  | .80  |
|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은 현재의 정치민주화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               | -.05 | .30  | .26  | -.60 |
| 설명하는 변량(%)   | 18   | 16   | 14   | 13   |

미와 목표를 찾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적극적이며( $r=.13$ ), 민주화와 함께 행동의 통제성 및 변화성을 더 생각함을( $r=.12$ )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신경성 경향이 뚜렷할수록 행동의 통제성 및 변화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07$ ). 여기서 언급해두어야 할 점은 성격 차원과 세 만족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과 이 지표들 간의 상관은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 특성들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 지표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표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인 3인 삶의 의미와 목표추구는 전체 만족( $r=.32$ ), 자신의 이상과 비교한 만족( $r=.31$ ), 그리고 친구와 비교한 만족과( $r=.29$ )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 이보다는 상관 정도가 떨어지지만 요인 1인 대인관계 적극성이 자신의 이상과 비교한 만족( $r=.12$ ) 및 친구와 비교한 만족과( $r=.13$ ) 자기 상관을 보였다. 신경성 경향은 친구와 비교한 만족과( $r=.10$ ), 행동의 통제성 및 변화성은 전체만족과( $r=.07$ ) 자기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패턴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다른 성격 차원들 중 대인관계 적극성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격 특성에 따라 민주화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예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민주화가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것이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성격의 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판단 경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물음과 이에 관련된 물음들에 답하고자 성격 특성들과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족생활에 대한 민주화의 총체적 영향, 민주화의 부정적 영향, 현재의 행복수준 등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였다(표 8). 전체 응답자의 52%는 민주화가 가족생활 전반에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한 반면, 42%는 가족생활 전반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5%는 나빠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민주화 시대에 사는 불편함 또는 나쁜 것을 가 지수에 상관없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과소비를 먼저 들었고, 51%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이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28%는 북한으로

〈표 7〉 성격 특성 및 삶에 대한 만족 변수들 간의 상관

| 성격 특성         | 삶 전체 | 만족     |        |
|---------------|------|--------|--------|
|               |      | 이상과 비교 | 친구와 비교 |
| 대인관계 적극성      | .06  | .12*   | .13*   |
| 신경성           | .01  | .01    | .10*   |
|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 | .32* | .31*   | .29*   |
| 행동의 통제 및 변화성  | .07* | .03    | .06    |

\* $p < .001$

〈표 8〉 성격 특성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

| 성격특성          |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 | 현재의 행복수준 | 지난 6개월 행복 |
|---------------|--------------|--------------|--------|----------|-----------|
| 대인관계 적극성      | .10*         | .06          | .05    | .06      | .11*      |
| 신경성           | .02          | .01          | -.09a  | .00      | .01       |
|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 | .47*         | .18*         | -.02   | .26*     | .24*      |
| 행동의 통제 및 변화성  | .09a         | .06          | .00    | .09a     | .11*      |

a  $p < .01$ ; \*  $p < .001$

부터의 위협, 27%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각기 지적하였다.

성격의 네 차원들 중 신경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반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삶의 보람과 의미추구 차원은 민주화영향과 큰 상관을( $r=.47$ ) 보여 주목된다. 또한 삶의 보람과 의미추구를 강조할수록 민주화가 가족생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r=.18$ ). 흥미롭게도 신경성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민주주의 시대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r=.09$ ). 성격의 네 차원들 중 현재의 행복수준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차원은 삶의 보람과 의미추구( $r=.26$ ) 및 행동의 통제성과 변화성( $r=.09$ )이었고, 신경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차원들은 모두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 정도와 양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들 중에서 역시 삶의 보람과 의미추구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24$ ).

응답자의 성격 특성, 민주화에 대한 지각 및 개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앞의 결과들에 의하면, 성격의 네 차원 중에서 신경성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들이 민주화에 대한 지각 및 행복감과 밀접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복지에 대한 하향론의 설명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 4. 민주화과정에 있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지금까지는 가구소득, 성격의 네 차원과 같은 독립변수들과 주관적 만족, 주관적 계층평가,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매개변수 등 10개의 변수들이 현재 삶의 질과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을 얼마나 결정짓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또 체험하는 삶의 질을 10개의 계단으로 된 사다리 중에서 택하도록 하여 그 응답을 얻은 결과 '보통의 삶의 질'로 해석될 수 있는 5, 6 단계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51%, 자신의 삶의 질이 나쁜 상태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15%, 자신의 현재의 삶이 좋은 상태

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좋은 상태로 지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지난 6개월간 행복하였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그 47%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고 보고한 반면, 42%는 행복감을 경험한 쪽으로, 11%는 불행을 경험한 쪽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의 패턴도 많은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종속변수 각각을 가구소득(상향독립변수), 성격 차원(하향독립변수), 주관적 계층평가,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매개변수) 등이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질 영역 중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세 문항, 즉 대인관계, 개인의 정치활동 및 교육 기회를 제외한 문항들의 응답 총점으로 이 변수가 측정되었다. 10개의 변수들은 현재의 삶의 질의 변량을 24% 설명하였다. 이 변수들 중 종속변수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량 중에서 개인에 미치는 민주화영향, 삶 전체 만족도, 주관적 계층평가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 영향이 순서대로 통계적으로 모두 .1%의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개인생활에 미치는 민주화영향임이 밝혀졌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격차원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독립변수들은 현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며, 인과의 연쇄상 종속 변수 바로 앞에 위치한 여러 주관적 평가들이 현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6개월의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앞의 변수들이 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회귀분석하였는데 10개의 변수들은 종속변수의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 이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 및 매개변수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현재 삶의 질에서 관찰된 것과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인다. 지난 6개월 간의 행복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량 중에서 삶 전체 만족도,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 영향, 능동적

〈표 9〉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상향 및 하향 독립변수, 매개변수들의 중다회귀분석

| 변 수             | B    | SE B | Beta | t    | 유의도      |
|-----------------|------|------|------|------|----------|
| 개인에 미치는 민주화영향   | .59  | .10  | .20  | 5.79 | p < .001 |
| 삶전체 만족도         | .35  | .04  | .25  | 8.37 | p < .001 |
| 주관적 계층평가        | .33  | .08  | .13  | 4.21 | p < .001 |
|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영향 | -.26 | .07  | -.11 | 3.69 | p < .001 |



〈표 10〉 6개월간의 행복감에 대한 상향 및 하향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중다회귀분석

| 변 수             | B    | SE B | Beta | t     | 유의도      |
|-----------------|------|------|------|-------|----------|
| 삶전체 만족도         | .29  | .03  | .32  | 10.34 | p < .001 |
|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영향 | .18  | .05  | .12  | 3.83  | p < .001 |
| 능동적 대인관계        | -.04 | .02  | -.07 | 2.41  | p < .016 |
| 개인에 미치는 민주화영향   | -.15 | .07  | -.07 | 2.23  | p < .028 |

대인관계 순으로 통계적으로 .1% 또는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재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민주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인 반면에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삶 전체에 대한 만족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가 난 가능한 이유로는 현재의 삶의 질을 10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바로 앞의 물음이 5공화국 시기에 응답자의 삶의 질을 먼저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미친 민주화영향의 설명력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은 응답자의 삶의 질에 대해 여러 유형의 물음들이 제기된 후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삶 전체에 대한 만족감이 제일 큰 설명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과 같은 상향 독립변수들은 현재의 삶의 질 또는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성격차원과 같은 하향 독립변수들도 그 효과가 미약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삶 전체 만족도,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 영향 및 개인에 미치는 민주화 영향과 같은 매개변수들이 종속변수와 관련있음이 드러났다. 이 중에서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실상 주관적 복지의 하나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삶의 질 또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개인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민주화영향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VI. 논 의

본 조사연구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가 응답자의 개인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인간적인 대우, 자아실현 및 보람 추구, 가정생활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생활 및 스트레스와 불안 영역에서는 악화 쪽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삶 전체나 이상 또는 친구와 비교한 만족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개인소득 그 자체보다는 소득을 위시하여 생활의 여러 측면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 평가가 역시 삶에 대한 만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개인소득 그 자체는 이러한 만족 지표들과 매우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같은 상향 독립변수 그 자체보다는 이를 포함하는 주관적 평가가 삶의 만족과 같은 매개변수들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Brief(1993) 등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반응을 요인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적극성, 신경성,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 그리고 행동의 통제 및 변화성의 네 성격 특성이 밝혀졌다. 성격 특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적극적인 대인관계 지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만큼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내적 통제보다는 외적 통제에 더 예민하고,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네 성격특성들은 Meyers(1993)가 보고한 개인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네 성격특성, 즉 자존감, 외향성, 낙관주의 및 개인적 통제감과도 관련된 특성으로 보인다. 즉 외향성은 대인관계 적극성과, 낙관주의는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과, 행동의 통제 및 변화성은 개인적 통제감과 각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자존감은 신경성과 역 상관관계에 있는 성격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네 성격특성은 충분히 일반화될 수 있는 특성들이며, 이들과 삶의 질의 관계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 특성들은 세 만족 지표는 물론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현재의 행복수준,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 등과 관련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주관적 복지를 설명함에 있어 성격 차원과 같은 하향 독립변수들을 고려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성격 특성들 중 삶의 의미 및 목표추구성이, 다른 매개 변수들은 물론 현 행복 수준이나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 같은 종속변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경성은 이러한 종속변수들과의 상관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미 언급한 두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어떤 독립 또는 매개 변수가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더 큰지를 알아보려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삶의 질, 즉 행복 수준은 개인에 미치는 민주화 영향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고,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의 경우 삶 전체 만족도가 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10개의 독립 및 매개 변수들 중 4가지 변수들만이 각 종속변수를 유의미한 통계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성격차원 중 한

차원만이 종속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주관적 계층평가나 민주화의 총체적 영향과 같은 주관적 평가 즉 매개 변수들이 종속 변수들을 잘 설명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Brief(1993) 등의 상호작용론과 이를 지지하는 결과에서 나오는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개인소득과 같은 상향 독립변수나 성격 특성과 같은 하향 독립변수들이 현재의 행복 수준이나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을 크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였다. Brief 등의 연구는 개인의 건강영역에 국한해서 개인의 부정적 감정, 객관적인 건강상태, 주관적인 건강 평가 등이 삶의 만족이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화과정이라는 커다란 정치 및 사회 변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향 독립변수나 하향 독립변수 그 자체보다는 민주화가 개인생활에 미친 영향의 지각, 삶 전체에 대한 만족 등과 같은 매개 변수들이 개인의 현재 행복수준이나 지난 6개월 간의 행복감을 결정함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미 Diener(1984)의 개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 복지를 결정적으로 설명하는 소수의 변수를 찾기 힘들며, 개인 소득이나 연령 같은 상향 변수들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고, 만족감 등과 같은 매개 변수들의 설명력이 성격이나 다른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치민주화에 따른 개인의 삶의 질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들이 선행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정치민주화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의 성격특성에 주목하면서 상호작용론의 틀 내에서 검토하려고 한 본 연구는 하향 독립변수인 성격 특성이 현재의 행복수준이나 지난 6개월의 행복감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한 결정인자임을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복지의 주요 차원인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과 같은 하향 독립변수들의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오랫동안 군부독재 하에서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왔기 때문에 민주화과정이 개인 인식의 어떤 평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이 타당하다면, 앞으로의 민주화과정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규명함에 있어서 삶의 만족과 함께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 차원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조명한·김정오  
 1993 "정보화와 삶의 질: 사회활동 및 개인심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 3-33.
- Andrews, F., & Withey, S.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um.
- Brief, A.P., Butcher, A.H., George, J.M., & Link, K.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l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sta, P.T., & McCrae, R.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Gibbs, B.A.M.  
 1973 "Relative deprivation and self-reported happiness of blacks: 1946-1966"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197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4, 1880B.
- Headey, B., Holstrom, E., & Wearing, A.  
 1984 "The impact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omain satisfactions on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203-227.
- Meyers, D.G.  
 1993 *The Pursuit of Happiness*. New York: Avon.
- Seidlitz, L., & Diener, E.  
 1993 "Memory for positive versus negative life events: Theories for the differences between happy and unhappy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54-664.
- Shaver, P., & Freedman, J. Happiness  
*Psychology Today*, 26-33.
- Shin, D.C.  
 1994 "Democratization and the Changing Quality of Korean Life: In the Eyes of Mass Public Opinio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